

##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6:17-27(현대인의 성경)

### 1. 말씀

17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는 달리 분열을 일삼고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18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19 여러분의 순종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20 평화의 하나님이 곧 사탄을 쳐서 여러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1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2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3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여 나와 성도들을 접대한 가이오와 이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믿음의 형제 구아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4(없음)  
25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을 믿음에 굳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만  
26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계시되고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27 이처럼 지혜로운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 3. 메시지

- 바울은 왜 어떤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하나요? (17-18절)

→ \_\_\_\_\_

- 바울은 분열을 일삼고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합니까?(18절)

→ \_\_\_\_\_

- 17절에서 바울은 "분열을 일삼고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내 삶이나 신앙생활에 '분열'이나 '걸림돌'이 되는 영향을 준 사람이나 상황이 있었나요?

→ \_\_\_\_\_

- 내가 지금 맞서고 있는 '영적 전쟁'이나 유혹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 싸움 가운데 실제로 경험된 적이 있나요?

→ \_\_\_\_\_

- 나는 교회 공동체나 사역 안에서 어떤 역할(숨겨진 헌신)을 감당하고 있나요?

→ \_\_\_\_\_

- 나에게 복음(기쁜 소식)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복음(기쁜 소식)이 나의 믿음을 굳게 세운 경험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 \_\_\_\_\_

###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_\_\_\_\_

- 바울이 권면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순결'하다는 말은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 \_\_\_\_\_

###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

니다. 함께 읽으면서 목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목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6:17-27(마침 교훈과 축복 송)

어떤 조직이든, 설사 교회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의견 충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의 결과가 나와서 분열되는 것을 보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가운데도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강한 어조의 책망이 있었는데,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사람들이 맞부딪힐 때 최악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만큼 인식의 차이가 커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정치판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권에 개입되어 있는 게 대다수의 경우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이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마음이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기를 간곡히 소망해 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며,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당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 하도록 있을 지어다.” 아멘!

## 6. 기도